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물의 속성을 이용한 무위적 회화 실험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현주

물의 속성을 이용한 무위적 회화 실험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현주


인 준 서

박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노신경 

심사위원 _____ 유근택 

심사위원 _____ 권기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기후위기의 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원인 가운데 하나를 산림의 파괴로 보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의 외부 활동이 줄자, 공기의 질이 좋아졌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보고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환경과 자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심이 있는 본 연구자는 환경과 자연을 주제로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삶의 태도를 실천해야 해야 하며, 이를 작업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도가의 무위사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도가사상(道家思想)의 대가인 노자(老子)는 자연이 스스로 그러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을 ‘무위(無爲)’ 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자연이 자연 모습 그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작업의 주요 재료가 되는 물의 속성을 통해 자연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이는 노자의 무위사상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무위적 태도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의 무위적 태도는 다음의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인위적인 작가성을 배제했다는 점. 둘째, 작품의 재료로 사용된 물이 자연 그대로의 속성으로 드러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작품 그 자체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위적 태도의 특징은 미니멀리즘과 모노하의 작업 태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위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 재료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

러 재료가 있지만 본 연구자는 ‘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물을 이용해 여러 실험을 거듭하며 물의 속성을 발견하고 발견한 속성을 통해 작업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자가 작품을 통해 발견한 물의 속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개인전을 중심으로 작품 내용을 분석하였다. <경계가 희미해>에서는 자연 세계에는 인간이 규정한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음에 주목한다. 물을 이용하여 실험한 작품은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막간을 이용하여: Intermission>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념을 격파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명명되어 있는 색을 잉크를 번지게 하여 색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거나 선명히 인쇄된 사진을 번지게 하여 흐릿하게 만드는 작업 등을 보여준다. 이는 개념과 개념 사이, 즉 개념으로 정리되지 않은 세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석사학위청구전 <수중진담 水中眞談>에서는 물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진행하였던 다양한 실험 작업을 통해 발견한 물의 속성(아래로 흐름, 종이에 번짐, 안료를 나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무위적 삶의 태도에서 바라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자의 작품에 드러난 무위적 표현기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II. 무위 개념과 무위적 태도의 이해	4
1. 무위 개념	4
2. 무위적 태도의 이해	6
III. 물의 속성을 이용한 무위적 회화 실험 연구	16
1. 무위적 회화 실험	16
2. 물의 속성을 이용한 무위적 표현기법	22
IV. 작품 내용 분석	30
1. <경계가 희미해>	31
2. <막간을 이용하여: Intermission>	36
3. <수중진담 水中眞談>	38
V. 결론	44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작 품 목 차

【작품 01】 <7:43 단면>, 가변설치, 2022	9
【작품 02】 <융해>, 130x130cm, 종이에 얼음과 안료, 2020	26
【작품 03】 <The Black is Melting>, 영상 스틸컷, 2019	30
【작품 04】 <대화들>, 가변설치, 종이에 안료와 얼음, 2021	31-32
【작품 05】 <경계가 희미해(Ice of River Project)>, 리트머스지, 얼음, 가 변설치, 2021/2020	33
【작품 06】 <경계가 희미해(Ice of River Project) process video>, 단채 널 영상, 00;03;16, 2021	33
【작품 07】 <7:43을 위한 드로잉>, 2022	37
【작품 08】 <색연구(Ink Project)>, 가변설치, 종이에 잉크, 2022	38
【작품 09】 <Circle>, 150x150x150cm, 종이에 적체 우린 물, 2023 ..	39
【작품 10】 <사이시간>, 가변설치, 종이에 안료, 2023	40
【작품 11】 <흐름>, 21∅x180cm, 3ea, 종이에 안료, 2023	41
【작품 12】 <얼음 산수>, 가변크기, 종이에 안료(혼합재료) 2023	42

도 판 목 차

[도판 01] 카지미르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80x80cm, 캔버스에 유채, 1915	7
[도판 02] 로버트 모리스, <Untitled>, 1967-8	9
[도판 03] 이우환, <관계항>, 돌, 유리, 철판, 가변 크기, 1969	11
[도판 04] <Circle> detail	11
[도판 05] 이우환, 파리 아뜰리에서	17
[도판 06] 모리스 루이스, <Saraband>, Acrylic resin on canvas, 256.9x378.5cm, 1959	18
[도판 07] 헬렌 프랑켄탈러, <산과 바다>, Oil and charcoal on canvas, 220×297.8 cm, 1952	19
[도판 08] <얼음산수> detail	21
[도판 09] <경계가 희미해> detail	24
[도판 10] <색 연구(Ink Project)> detail	26
[도판 11] 그릇 모양에 따른 얼음 사진	28
[도판 12] <융해> detail	34
[도판 13] <막간을 이용하여> 전시 전경	3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년 동안 우리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코로나 19의 원인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 감염병의 70% 정도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염병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산림의 파괴다. 인간의 삶의 터전과 달리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주로 숲이다. 인간 중심의 개발로 인해 산림은 점점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숲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또 숲이 개발되면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가능한 거리를 좁히게 되었다.¹⁾ 이렇듯 오랫동안 우리 일상에 지장과 피해를 주었던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기후위기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개발은 결국 인간에게 고스란히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의 삶 또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의 외부활동이 줄자, 2014년 초미세먼지 연중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치를 기록했다²⁾는 기사는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자연에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해준다.

자연과의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팬데믹을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침범할수록 자연은 경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고민하던 중 자연이 가진 본성, 즉 거스르지 않

1) 윤순진 외, 코로나19 특집 다큐: 2050 생존의 길 | 특집 시사기획 창 306회 (2020.11.07.), <https://youtu.be/fjvbrtHE7K0>

2) 김민철, '조선일보 기사 [만물상] 서울 공기가 뉴질랜드보다 좋다니' (2022.08.31.)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2/06/15/YI6Y7V7RNZG4DGNVYGQJ BIF7MA/>

는, 있는 그대로의 삶의 태도에 대해 천착하게 되었고, 이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본 연구자는 작업에서 인위적인 행위를 제거하는 실험적 작품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자연으로부터의 모티브를 작업세계로 가져오면서, “자연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은 무엇일까?” 라는 1차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회화에서 흔히 다루는 붓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붓질이란, 실체나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회화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다. 인위적인 기술의 한 방편으로 승화된 그림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예술’로 규정한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그렇다면 인위적인 붓질을 배제한 그림이 가능할까?” 라는 2차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동양화는 화선지에 먹을 이용하여 붓질의 강약 조절에 따라 자연의 현상을 재현해내는 화법이라 알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에서 인위적인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자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동양화의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가능한 한 붓질을 최소화하여 물의 속성만을 이용한 실험적 작품을 진행하였다. 붓질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질료와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자의 생각은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무위(無爲) 철학과 맞닿아 있다. 무위(無爲)란 작위(作爲)성을 거부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 또한, 작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드러나는 자연의 속성을 발견하고, 자연의 무위적 태도를 통해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의 목적은 작가를 포함한 관람자가 작품을 통해 무위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는 작위적인 태도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물의 속성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작업 과정에서 무위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작업을 대하는 태도에서 엿볼 수 있으며, 동양에서는 모노하 그룹의 작업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무위적 태도를 미니멀리즘과 모노하 작가들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본 연구자의 작업 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무위적 태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물을 작업의 재료로 하여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발견한 물의 속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을 예시로 물과 종이와 만나 반응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발견한 물의 속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완성된 작품인 본 연구자의 주요 전시 <경계가 희미해>와 <막간을 이용하여: Intermission> 석사학위청구전 <수중진담 水中眞談>의 작품 제작 단계부터 전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무위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 방법을 통해 본 연구자는 물의 속성을 이용한 결과물 곧 무위적 표현기법³⁾을 활용한 작업의 과정에서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다.

3) “무위적 표현기법”이란 본 연구자의 작업 태도를 일컫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창안해낸 개념임을 밝힙니다.

II. 무위 개념과 무위적 태도의 이해

1. 무위 개념

본 연구자는 자연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인 행위를 제거하여 자연 현상 그 자체가 작업의 완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적 태도를 노자(老子)의 무위(無爲) 철학에서 찾았다. 무위적 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도가 사상의 무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도가 사상이란 인간의 현실적 타락을 벗어나 자연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고 무위의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도가의 대표적 철학자인 노자(老子)의 도덕경 1장을 보면,

“그러므로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신묘함을 보고, 항상 욕심이 있으면 그 돌아가는 꼴을 본다.” 4)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욕심이 없이 그 마음을 텅 비워내면 만물의 신묘함을 볼 수 있다고 보며, 욕심의 뿌리인 마음은 도에 나아간 뒤에야 가지런해진다. 그러므로 항상 비워야 한다는 뜻을 알 수 있다.

도가의 중심은 ‘도(道)’에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도(道)’란 천지만물을 발생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만물의 근원이다.⁵⁾ 노자는 천지만물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만물의 근원인 도가 움직이는 상황 자체를 ‘자연’이라 설명한다. 이때 ‘자연(自然)’은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 (Nature)의 뜻과는

4) 故常無欲이면 以觀基妙하고 常有欲이면 以觀基微하니라, -도덕경 제 1장, 김시천 역, 『왕필의 풀이로 읽는 노자도덕경』, 전통문화연구회, 2020, pp 18-19

5) 박덕인·서우석, 「노자 사상의 환경윤리적 함의」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1』, 2004, p24

다르다. 도가에서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을 나타내는 상태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⁶⁾ 노자 철학에서는 이러한 자연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무위(無爲)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위란 인위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어떤 존재가 스스로 그러하도록 비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의 힘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행위를 뜻한다. 인간이 지나치게 활동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그 결과는 너무 지나치게 된다.⁷⁾ 인간이 무위를 실천할 때 자연의 원리가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다. 즉, 모든 존재를 스스로 그러하게 내버려 둘 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도가에서의 자연이란 천지만물의 움직임을 말하고, 무위는 인간의 움직임을 뜻하여 구분되긴 하나 그 근본을 따지면 하나이기 때문에 무위자연이라 말한다. 따라서, 무위를 통해서 도(道)에 다가갈 때 인간의 내재적 상태인 덕(德)을 기를 수 있다고 한다.⁸⁾

노자는 얼룩진 인간의 문명과 문화에서 무위의 태도를 가져 여유를 가지도록 권고한다. 인간이 무위의 힘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자연의 건강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⁹⁾ 본 연구자가 무위적 태도로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을 스스로 두었을 때 우리 인간과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이치에 맞게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인간의 관점으로 자연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라보며 삶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6) 전유미·배정민·한왕모,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노자 사상의 시각적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p 335

7) 평유란, 정인재 역, 『간명한 중국철학사』, 2018, p 106

8) 박덕인·서우석, 「노자 사상의 환경윤리적 함의」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1』, 2004, p26

9) 김백희, 『노자의 사유방식』, 한국학술정보, 2006, pp 204-205

연구자는 노자의 무위적 삶의 태도를 작품에 녹여내는 시도를 하였다. 다음에서는 동·서양의 미술사조에서 찾을 수 있는 무위적인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본 연구자의 작품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무위적 태도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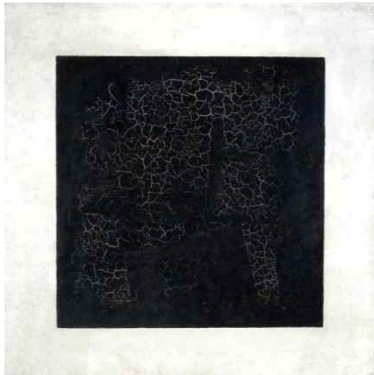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본인의 작품세계에서 실천하고 있는 무위적 행위를 ‘무위적 태도’ 칭하였는데, 본 연구자가 취하고 있는 무위적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위적인 작가의 손을 배제했다는 점. 둘째, 작품의 재료가 드러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작품의 주재료인 물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자는 작업의 과정에서 취한 무위적 태도를 미술사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은 미니멀리즘과 모노하의 작업 태도에서 무위적 태도에 관한 내용이다.

1) 작가성의 배제

본 연구자는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작가성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와 그에 따라 재료의 물질성이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작가 토니 스미스(Tony Smith 1912~1980)가 <죽다(die), 1962>를 제작할 때에 작가는 단지 철공소에 전화를 걸어 "철판으로 커다란 주사위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어 미술관 마당에 설치해 달라"로 지시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¹⁰⁾

본 연구자가 시도한 ‘얼음 스스로 녹아 작품이 완성되게 만드는 태도’는 토니 스미스가 단지 철공소에 전화한 것이 작업 과정의 전부였던 것과 같이 작가의 행위(작가성)를 배제한 태도라 볼 수 있다. 미니멀리즘 미술이 어떻게 작가성을 배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0)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후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편』, 휴머니스트, 2013, p 125



(도판 01) 카지미르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80x80cm, 캔버스에 유채, 1915

미니멀리즘이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한 미술을 말한다. 미니멀리즘은 말레비치의 [도판 01] <검은 사각형>이라는 작품에서 출발한다. 흰 바탕에 검은색 사각형이 가득 차 있는 화면을 보면 이전 미술과는 달리 어떠한 형태도 찾아볼 수 없다. 말레비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술은 이제 더는 국가와 종교를 섬기려 들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물체와 아무 관련도 가지지 않기를 원하

고, 예술이 그 자체로서 단독으로 다른 물건들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¹¹⁾ 이러한 말레비치의 예술에 대한 태도는 미니멀리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미니멀리즘은 환영을 탈피하고 기존 예술에 반(反)한 노력의 결과이며, 심지어는 '작가' 자체를 지우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작품은 점점 '미니멀'해졌고, 그 결과가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이들에게 작품은 작가의 주관 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로서 존재할 뿐이었다. 미니멀리즘에서 작가성이 지워진 계기는 '감상자의 경험' 이라 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 이전 모더니즘 미술에서는 '작가' 가 가장 중요했고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면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작가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감상자의 경험에 관심을 가진 미니멀리즘에서는 현상학적 인식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 관람객이 '인지' 할 때 다르게 느낀다는 지점을 캐치하여 작품과 관람객이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위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물-공간-사람' 에 대한 관심은 메를로 폰티(Merleau-Ponty 1908~1961)의 「지각의 현상학」(1945)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메를로-폰티는

11) 니코스 스탠고스, 성완경/김안례역,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2004, p 367

“나는 신체의 힘으로 세계를 의식한다. 나의 신체의 위치는 내가 지각하는 대상들의 위치를 규정하고, 내가 지각하는 대상들의 위치 또한 나의 신체의 위치에 작용한다.”¹²⁾고 말했다. 메를로 폰티에 영향을 받은 미니멀리즘 이후, 이제 미술은 사물을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미술이 되었다. 감상자의 관점을 허용하고, 경험하는 예술이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작가의 영향이다. 본 연구자는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태도에서 무위적 태도를 찾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얼음의 자리를 선정하여 두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미니멀리즘 작가들도 마찬가지다. 토니 스미스는 공장으로 주문한 작품을 그대로 바닥에 놓는 것 외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작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상자의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전시 현장에 얼음을 설치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관람객이 작품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작가의 의도를 담아내는 것보다 관람객들 스스로 자연을 사유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관객 스스로가 얼음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물질성

이제 작가가 없는 작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2018)의 펠트 작업을 살펴보자. [도판 02] <Untitled>를 보면 펠트 조각을 벽과 바닥에 느슨하게 늘어지도록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은 재료의 속성이다. 펠트는 성질에 따라 느슨하게 놓이게 된다. 펠트 작업은 전시 장소에 놓여지면서 그 모습이 결정되고 쉽게 그 모양이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우연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리스는 ‘반(反)

12) 신혜영, 「모리스 메를로-폰티의 현상학과 윤리학: 도덕적 주체 개념」,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68집, 한국현상학회, 2016, p 88

형태’ 라고 불렀다. 고정되어있지 않은 물질을 통해 그 물성을 드러낸 작품에서 무위적 태도를 발견하였고, 작업의 과정에서 무위를 실천할 때 재료의 성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도판 02) 로버트 모리스, <Untitled>, 1967-8



【작품 01】 <7:43 단면>, 가변설치, 2022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얼음이 종이에 스며드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물과 종이의 물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얼음이 녹아 물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종이에 흡수되고 번지는 등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작품 01】은 <7:43>을 제작한 종이의 단면이며, 종이가 물을 흡수한 모습과 유연한 속성을 볼 수 있다.

3) 존재적 사물

본 연구자는 얼음을 두고 그 자체를 내버려 두는 태도를 취하는데, 사물 그 자체로 내버려 두는 무위적 태도를 미술사에서 찾아보면 모노하¹³⁾ 그룹이 대표적이다. ‘모노’란 사물들과의 관계를 보며 경험하는 느낌, “다른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모노’는 개념화가 있기 전의 모든 것 즉, 이름이 있기 전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 모노하 작가들은 작업의 소재이자 결과물이 되는 모노들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¹⁴⁾ 이우환의 말에 따르면 모노하는 “고정된 ‘물(物)’이 아니라 가변적인 ‘일(事)’로 환치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즉, ‘일’로 여기기 때문에 능동적인 시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차용된 모노들의 실험적 배치를 요구했다. 스가 키시오(Kishio Suga 1969~)는 이러한 배치를 “방치”라 부른다.¹⁵⁾

‘방치’란 실제로 보이는 사물을 보란 듯이 여기 저기 흩뜨려 놓는 것도,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바닥이나 지면에 방치해 두는 것도 아니다. [...]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치’의 상황이란 돌과 같은 것에 대한 일상의 개념, 그리고 사물 자체의 개념, 상황으로 독립하고 있는 개념 등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물의 어느 상황 바로 그것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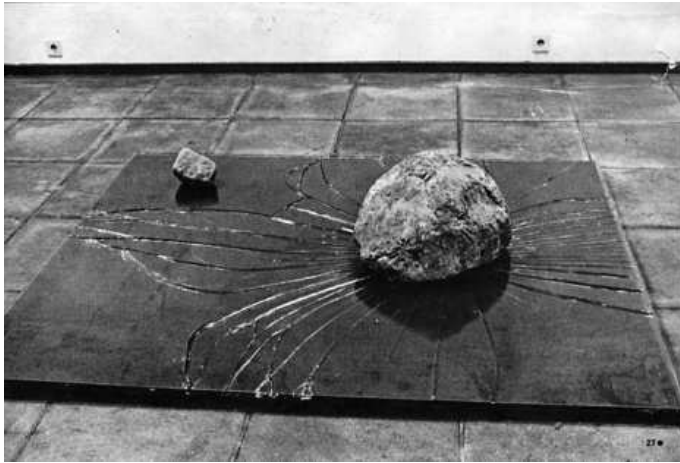
이렇게 ‘개념’에서 분리된 사물은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모노하란 1970년전후로 일본에서 전개된 미술운동이다. 모노하의 작품들은 차용된 자연물과 가공물을 사용하여, 각목으로 창문을 열린 상태로 막아놓는다든가, 돌을 철판이나 깨진 유리판에 포개어 놓거나, 나무 블록들을 전시장 기둥에 밧줄로 묶는 등 사물들의 결합을 통해 상황과 구조를 드러낸다. 손지민, 「모노는 어떻게 예술적일 수 있는가?」, 인문논총 제 78권 제 4호, 2021, p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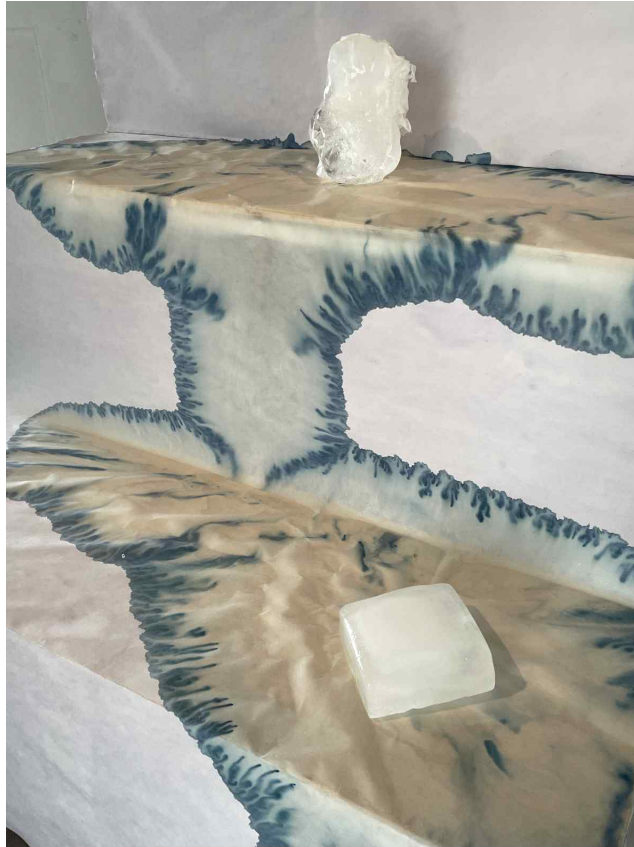
14) 손지민, 같은 책, pp 275-276

15) 손지민, 「모노는 어떻게 예술적일 수 있는가?」, 인문논총 제 78권 제 4호, 2021, p 277

16) 스가 키시오, 「나는 현대전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방치라는 상황」, 1971, 『비주츠 테초』; 김미경(2006), pp 236-237에서 재인용



[도판 03] 이우환, <관계항>, 돌, 유리, 철판, 가변 크기, 1969



[도판 04] <Circle> detail

[도판 03] <관계항>은 모노하를 이끌었던 이우환의 대표적인 조각 시리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을 보면 커다란 돌과 그 아래 유리가 놓여있다. 자연의 돌맹이와 산업사회의 물질인 유리가 서로 조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관계항 시리즈에서는 자연에 불과한 재료들을 작가가 배치하고 있다. [도판 04]는 작품 <Circle>에 놓인 얼음 사진이다. 본 연구자도 얼음을 일정 위치에 배치한다. 이우환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자연,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준다고 말한다.¹⁷⁾ 본 연구자 또한 얼음을 배치하고 지켜봄을 통해 자연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우환 작품의 돌맹이는 작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람객은 ‘왜, 작가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을 전시할까?’라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작품을 미적 대상으로 여긴다.¹⁸⁾ 앞서 설명한 ‘모노’ 즉, 일상의 것이지만 무언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우환은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을 ‘만남’이라고 설명한다. 물웅덩이나 매일 보는 돌에 어느 순간 시선이 머무는 것은 그 사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서로가 ‘만남’ 것이다. 이우환은 이러한 경험을 예술의 언어로 보여준다. 돌과 철판은 일상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나칠 수 있지만 무언가 특별해 보였던 그 경험을 전시장으로 가져와서 서로가 만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작가의 손을 거치지 않는 태도는 미니멀리즘과 닮아있는 듯하지만 사물을 대하는 관점은 다르다. 미니멀리즘은 공업이나 건축재료 즉, 산업재료만을 사용한 반면 모노하의 재료는 자연 그 자체를 작품으로 사용한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에게 작업의 물리적인 형태는 그저 관람객에게 해석을 맡기고 공간, 작품, 관객의 관계를 불러 일으킬 뿐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지는 않고 있다.

17) 남수진, 「공존의 미의식: 이우환의 작품세계」, 동양예술 28, 2015, p 33

18) 심은록, 『양의의 예술』, 현대문학, 2014, p 25

하지만 모노하는 작품이 되는 자연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과 철판의 관계, 즉 만남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인간중심주의가 만연했던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연을 가공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서구 근대 사회가 돌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각품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 데에 사용하는 재료일 뿐이다. 이렇듯 서구 문화권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물성을 탐구한 것은 산업사회와 도구로써의 물질을 탈피한 ‘조각의 추상’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우환의 조각 작품은 다르다. 이는 작품의 재료가 되는 자연물을 고르는 이우환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데, 이우환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다.

1971년 파리 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돌을 파리에서 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파리 근교를 돌아다녀도 자신이 찾는 돌이 없었다고 한다. 오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겨우 찾아서 전시장으로 가져왔는데, 이우환이 가져왔던 돌은 훔친 것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 벌어진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서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 그 돌이 있었던 곳이 ‘일본 정원’ 이었고, 그 돌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 사유물이었다고 한다.¹⁹⁾ 이우환이 프랑스에서 그토록 찾던 돌이 동양의 돌이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사람들은 이우환이 돌을 고를 때에도 작가의 취향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지만 이우환의 주장은 다르다. 이우환은 돌과의 ‘만남’ 의 과정을 거친 다음 작품으로 가져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작가는 자연물을 단지 공산품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을 하나의 주체로서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우환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이우환의 작품의 재료가 되는 자연은 능동적인 자연으로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우환에게 자연이란 지각하는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9) 심은록, 『양의의 예술』 현대문학, 2014, pp 26-28

이우환은 자연 그대로를 보여줌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과 자연, 자연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 재료인 물과 물의 속성을 자연이라 여긴다. 이것은 물의 주체성을 인정한 태도라 할 수 있고, 이는 모노하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작품을 단순화함으로써 공간을 드러내고, 작가성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모노하의 작품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연의 특징을 통해 자연과 ‘대화’, ‘만남’ 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연을 적극적인 주체자의 태도로 바라봤던 모노하가 노자의 무위사상을 더 잘 설명해준다고 보았다.

도가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루며, 순환·소통함으로써 합일한다고 말한다.²⁰⁾ 모노하에서의 자연과 만남을 통해 소통하려고 했던 태도가 도가사상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노자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사물 외에도 사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²¹⁾ 모노하에서는 사물(자연)의 외적 표면 너머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데, 모노하에서는 자연을 그대로 두어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무위적 태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모노하에서 무위적 태도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자의 작업 과정에서도 무위적 태도를 찾을 수 있다. 얼음을 한 자리에 두고 그것이 물이 되어 흐르게 두는 태도, 종이에 물을 흡수시켜 그 과정을 지켜보는 태도, 안료가 섞인 얼음을 겹겹이 쌓은 종이 위에 올려두고 흡수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태도에서 일관된 태도는 어떠한 상황만 연출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작가의 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을 그대로 두어 나타나는 현상 자체

20) 전유미·배정민·한왕모,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노자사상의 시각적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8, p 333

21) 전유미·배정민·한왕모, 위의 책, p 335

를 작업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태도는 무위자연의 태도인 ‘내버려둠’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Ⅲ. 물의 속성을 이용한 무위적 회화 실험 연구

앞 장에서 본 연구자의 작업 태도인 작가가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는 점과, 감상자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물질성이 드러나는 점을 미니멀리즘의 작업 태도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작품의 재료가 되는 자연의 주체성을 인정했다는 태도를 모노하의 작업 태도에서 찾았다.

본 연구자는 노자 철학의 핵심 개념인 ‘무위(無爲)’를 작업의 태도로 삼고자 하였다. 도가사상에서 ‘무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인 행위만 하라고 한다. ‘자연적’이란 어떠한 인위의 행동을 최소화하고 자기의 덕(德)을 따르는 것이다.²²⁾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무위적 태도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 과정에서 작가로서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동시에 인위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 본 장에서는 무위적 표현기법 실험을 진행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물의 속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무위적 회화 실험

본 연구자의 작품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입체와 조각의 영역과 맞닿아 있지만 본 연구자의 작품은 회화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자는 종이를 기본 재료로 회화적 실험연구로 시작하였으며, 이를 보여주는 방식을 점차 확장시켜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작품이 어떻게 회화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지, 무위적 태도와 본 연구자의 작업 기법과 유사한 회화 작품들을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모노하를 이끌었던 이우환은 회화 작품에서도 ‘만남’을 추구

22) 평유란, 정인재 역, 『간명한 중국철학사』, 2018, p 167

하여, 본 연구자가 주장하고 있는 무위적 태도를 실천하고 있다. 회화 작품 중 <조용>에는 흰 캔버스에 점 하나가 그려져 있다. 이우환은 조용 작품을 제작할 때 캔버스를 완전히 눕혀서 그린다고 한다. 이우환은 이젤이나 벽에 세워서 그림을 그리면 캔버스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고, 정면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작가가 생각하는 의식이 모두 투영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이우환은

“내 의식을 몽땅 거기에 쏟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이가 더 떠야 되고, 주변에 공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바닥에 눕혀 그림니다.” 23)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우환은 회화 작업에서도 작가의 힘을 덜어내고 주변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는 ‘무위’를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의식을 덜어내고 감상자가 작품과 조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우환은 작품의 제목에 ‘대화’, ‘조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그가 작품과 대면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우환의 작품은 회화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마주 선 그 ‘순간’에



(도판 05) 이우환, 파리 아틀리에서

23) 심은록, 『양양의 예술』 현대문학, 2014, p 99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우환의 조각작품이든 회화작품이든 ‘만남’이 가장 핵심이 된다. ‘만남’ 자체가 작품이 된다는 것은 평면에서 확장되어 공간, 공기 등 여러 요소 전체가 작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얼음이 녹아 물이라는 상태가 만들어 내는 화면은 평면으로 나타나지만 얼음이 녹는 순간과 감상자가 작품을 경험하는 상황 자체를 작품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이우환이 회화 작품을 상황 자체를 작품으로 여겼던 것처럼, 본 연구자의 작품 또한 회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공간과 상황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도판 06) 모리스 루이스, <Saraband>, Acrylic resin on canvas, 256.9x378.5cm, 1959

다음은 무위적 태도가 회화기법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모리스 루이스 (Morris Louis 1912~1962)의 작품은 캔버스에 물감을 스며들게 하여 만든 작품으로, 본 연구자가 취하고 있는 무위적 표현기법과 맞닿아 있다.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화’라는 개념의 역사를 간단히 들여다 보고자 한다. ‘회화’라는 개념은 모더니즘 이후 정리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데, 모더니즘 미술사에서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린버그는 회화가 진정으로 회화적 이려면 회화가 아닌 것들을 소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결과 가장 회화적인 것은 ‘평면성’ 과 ‘색’ 이다. 동시대 미술에서는 그린버그가 강조한 회화를 성취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회화의 형태라고 여기진 않지만, 평면성과 색이 회화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 [도판 06] <Saraband>를 살펴보면 물감이 캔버스에 흡수되어 있다. 이 작품은 환영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면성’ 과 ‘색’ 만이 남아 그린버그가 설명했던 ‘회화’ 를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에서 물과 섞인 안료가 천천히 녹아 종이에 흡수되면서 자국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결과 평면에 색이 남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은 회화의 본래적 특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작업의 과정에서 구현해 내었다고 하겠다.

한편, 모리스 루이스의 작업 태도에서는 무위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루이스는 밀칠을 하지 않은 캔버스에 묽은 아크릴 물감을 흘려 스며드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으로 인해 캔버스나 물감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난다.²⁴⁾ 이러한 특징은 앞서 설명한 무위적 태도의 성격인 물질성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캔버스에 물감을 흡수시켜 만드는 작가로는 헬렌 프랑켄탈러를 살펴볼 수 있다. 헬렌 프랑켄탈러는 유채 물감을 아주 묽고 맑게 만들어 캔버스 위에서 부드럽게 문질러 캔버스에 온전히 스며들게 한다.²⁵⁾ [도판 07] <산과 바다>를 보면, 작가가 온전히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캔버스 위에 흐르고 스며들면서 자연스러운 얼룩이 생기게 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프랑켄

24) 김경남, 「자연의 불확정적, 불규칙적인 비주얼의 형식미적 해석」, 한국디자인지식포럼, 2008, p 163

25) 정은영, 「액션 페인팅에 대한 회화적 도전의 비판적 양상과 교육적 함의 - 잭슨 폴록과 윌렘 드 쿠닝에 대한 회화적 도전을 중심으로 -」 造形教育, 2015, p 231

탈리는 천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서 물감을 바른다고 한다. 이 과정은 이우환의 작업 방식과 맞닿는 부분이다. 작가의 의식이 온전히 작품에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우환이 설명했던 ‘만남’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 프랑켄탈러의 작품의 스며드는 회화적 기법은 본 연구자가 얼음을 통해 사용하는 스며들기 기법과 맞닿아 있다.



〔도판 07〕 헬렌 프랑켄탈러, <산과 바다>, Oil and charcoal on canvas, 220×297.8 cm, 1952

[도판 08] 은 작품 <얼음산수>의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 작품에서는 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종이라는 평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리스 루이스, 헬렌 프랑켄탈러가 캔버스에 물감을 완전히 흡수시켰다면, 본 연구자는 종이에 안료를 흡수시켰다. 본 연구자의 초기 작품은 종이에 화관을 붙여 제작하는 회화적 실험에서 출발하였다. 점차 여러 겹의 종이 사이를 넓게 하여 널어놓는 방식, 입체의 형태로 늘어뜨려 놓는 방식, 원기둥 형태로 말아두는 방식 등 종이를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재료가 주체성을 가지고 감상자가 소통에 참여 가능한 공간을 만들려고 한 노력이었다. 본 연구자는 무위적 표현기법을 감상자의 눈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품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의 기법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 드러난 기성 회화 작품을



[도판 08] <얼음산수> detail

살펴보았다. 이우환의 작품을 통해 ‘회화’ 이면서 공간과 시간, 주변 상황을 모두 포괄하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가 취하고 있는 무위적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모리스 루이스는 캔버스에 온전히 물감을 스며들게 하면서 붓질을 통해 만들어 낸 화면이 아니라 물감이 스스로 흘러내리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물감 스스로가 캔버스에 스며들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물질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즉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에서는 물질성이 드러나는 특징인 무위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캔버스에 묻은 물감이 스며드는 기법을 활용한 헬렌 프랑켄탈러의 작품에서는 안료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얼룩이 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 연구자의 표현기법과 비슷한 면을 찾을 수 있었다.

2. 물의 속성을 이용한 무위적 표현기법

무위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회화 재료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물’이라는 자연물이 무위적 태도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물’의 속성을 통해 실험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못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천한 곳에 자리잡는다.”²⁶⁾

위 글에서 노자는 물을 가장 좋은 것이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되며,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다투지 않음은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는데, 이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뜻이다.²⁷⁾ 이처럼 본 연구자는 ‘물’이 자연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자는 동양의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동양의 재료는 친수(親水)

26) 上善은 若水하니 水善利萬物而不爭하며 處衆人之所惡라 -도덕경 제 8장, 김시천 역, 『왕필의 풀이로 읽는 노자도덕경』, 전통문화연구회, 2020, p 36

27)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04, pp 284-285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자가 담고자 하는 자연의 속성을 보여주기 적합하다고 여겼다. 먹은 물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을 얻는다. 물과 먹이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²⁸⁾ 먹 뿐만 아니라 동양의 안료(顔料) 또한 물에 개어 사용하며, 물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낸다. 동양 회화의 바탕이 되는 동양의 재료인 종이는 서구 캔버스와는 달리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종이가 물을 머금고, 안료를 칠하면 물과 함께 번져 나간다. 본 연구자는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 자체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특성을 관객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실험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의 물이란 흐를 수 있는 물성을 말하며, 안료와 먹은 물을 통해 생명력을 얻는다. 따라서 동양화의 재료는 자연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라보며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자는 동양의 재료를 바탕으로 무위적 표현기법 실험을 거듭하면서 물의 속성을 발견하였는데, 본 연구자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찾은 물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둘째. 물은 무언가를 실어 나른다.

셋째. 물은 종이에 흡수된다.

넷째. 물은 어떤 형태로든 변한다.

1)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작품 <얼음산수>의 과정 상세 사진인 [도판 08] 을 다시 확인해보면 얼음이 녹아 아래로 떨어지고 종이를 따라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

28) 가오싱젠, 박주은 역,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p 248



(도판 09) <경계가 희미해> 中 左 2020작/ 右 2021작

질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는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였다. 그 중에는 작품 <경계가 희미해>가 있는데, 적채(赤菜) 우린 물을 발라 준비한 종이를 따라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그림이 되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작품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여러 차례 진행하였는데, 그 모습은 매번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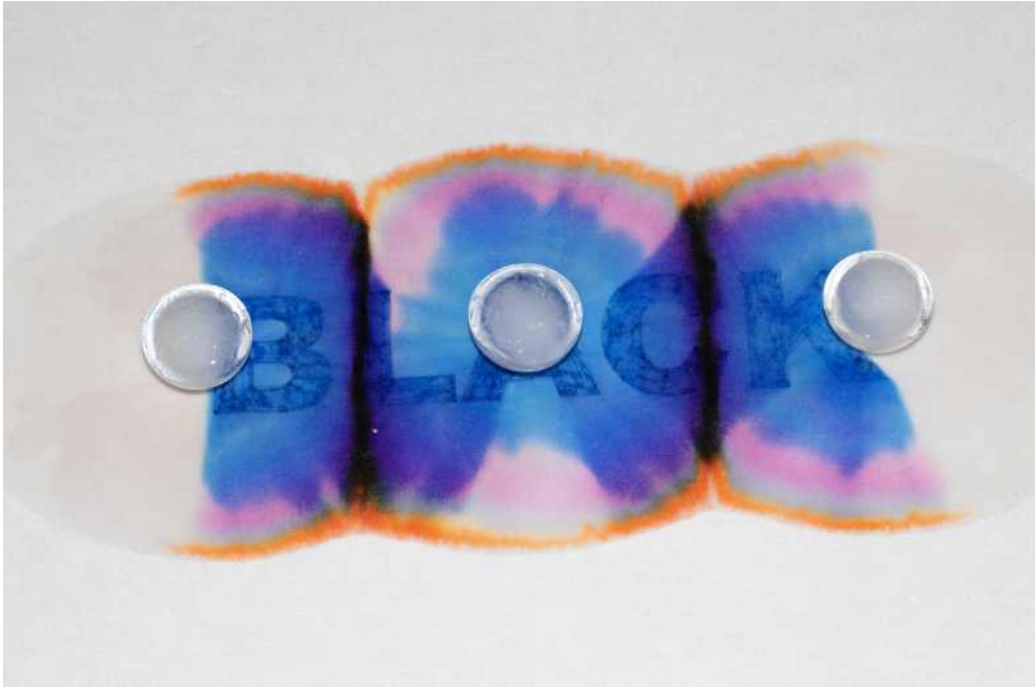
[도판 09] 은 다른 두 날 진행했던 사진이다. 두 사진에서 물은 매번 다른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작업을 진행하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작업을 확장 실험하고 있다. 이렇듯 본 연구자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모습은 예측불허하다는 특성을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2) 물은 무언가를 실어 나른다.

본 연구자는 작품에 따라 물에 안료를 섞어서 얼리고, 그 얼음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작품 02】 를 보면 화면 중앙에서부터 얼음이 녹아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과 섞여 있던 안료가 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종이에 흔적을 남긴다.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안에 녹아있던 안료들이 물을 타고 번져나가 그 색이 종이에 흡수된 것이다. 이처럼 물은 그 안에 담고 있던 물질을

움긴다.



(도판 10) <색 연구(Ink Project)> detail

잉크로 글씨를 적은 후 투명한 얼음을 올려두고 녹으면서 물로 잉크를 번지게 한 [도판 10] <색 연구: Ink Project>의 과정사진을 보면 잉크가 물을 타고 자리를 옮겨 가는 확인할 수 있다. 물에 잉크가 녹으면서 하나의 색을 띠고 있던 잉크는 물에 번지면서 점점 여러 색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는 혼합되어 하나의 색으로 보여졌던 잉크가 분리되는 현상을 통해 원래의 본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물은 무엇을 담고 그것을 옮기고 실어 나르는 성질을 통해 자연의 본성을 회복하도록 촉구한다.

3) 물은 종이에 흡수된다.



【작품 02】 <용해>, 130x130cm, 종이에 얼음과 안료, 2020

본 연구자는 종이에서 물이 반응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확장하며, 종이에 번짐을 연구하였다. 【작품 02】 <용해>에서는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그 물이 온전히 종이에 흡수되고 번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용해>를 보면 종이에 얼음이 녹으면서 색을 담은 물이 흡수되고 점차 번져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물은 그 상황을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물은 종이에 닿는 순간 거부하지 않고 그 흐름대로 자신을 종이에 맡긴다. 그 속성에 따라 흘러간 다음, 물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안료만 종이에 남게 된다. 여기에서는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하는 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이용한 다른 작품으로는 잉크를 이용한 작품이 있다. 종이에 잉크젯 인쇄한 다음, 물을 밑면부터 적시면 종이를 따라 물이 흡수되어 올라간다. 물이 종이를 타고 올라가면서 종이에 인쇄된 잉크를 번지게 한다. 여기에서 흡수되는 효과를 보려면 종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종이는 무언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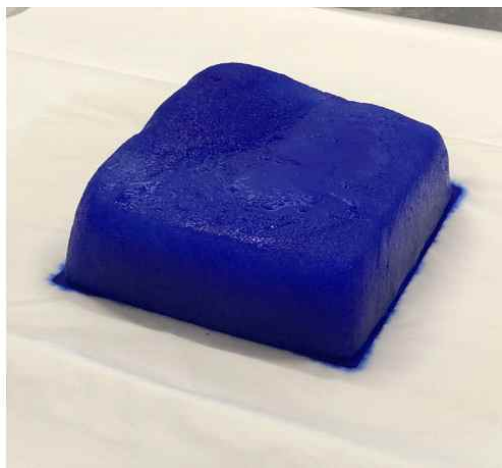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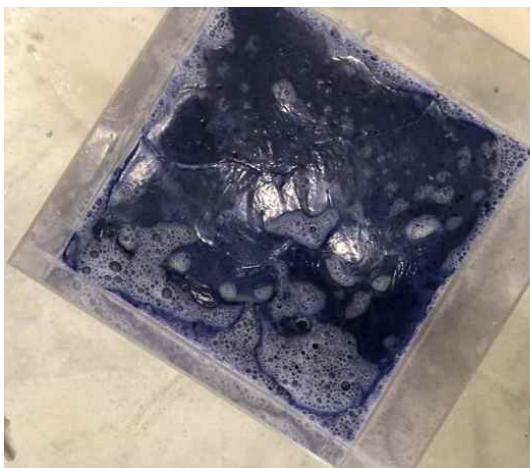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코팅된 종이나 공기 중에 오래 둔 종이는 물을 머금지 않아,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본 연구자는 종이의 흡수되는 성질을 잃지 않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기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4) 물은 어떤 형태로든 변한다.

본 연구자는 얼음을 얼릴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한다. [도판 11] 그릇 모양에 따른 얼음 사진을 보면, 작품 <경계가 희미해>에서 사용한 얼음은 페트병 모양, 작품 <대화들>을 제작할 때에는 사각형 틀, <사이시간>을 제작할 때에는 원형 틀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얼음은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물은 항상 단단하고 강한 것에 양보하고, 자신이 담긴 어떠한 그릇의 모습도 취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능력 즉 융통성과 유연성을 뜻한다.²⁹⁾

본 연구자의 작품을 보면, 그 얼음이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녹기 시작한다. 얼음이 된 상태로는 그릇의 모양대로 되었다가 녹는 순간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그때 다시 물이나 종이와 섞이고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된다. 물을 얼음의 고체 상태로 변화시켰다가 그 얼음을 다시 물로 변화시키면서 물의 유연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얼음이 물로 변하면서 자유분방하게 녹고 종이에 번지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의 속성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또한, 본 연구자는 작업의 과정을 통해 물질끼리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소통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29) 사라 알란, 오만중 역,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문서원, 1999, p 86



(도판 11) 그릇 모양에 따른 얼음 사진

본 연구자는 무위적 태도를 실천하고 자연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작업 태도로 물을 이용한 회화적 실험을 거듭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가 자연의 속성을 미술로 보여주기 위해 작가로서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위 즉, 자연을 통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구상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물의 속성을 탐구하고 보여주려는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IV. 작품 내용 분석

본 연구자가 무위적 표현기법으로 작업하는 목적은 자연의 속성을 통해 무위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자는 무위적 태도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작가를 포함한 관람객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길 소망한다.



【작품 03】 <The Black is Melting>, 영상 스틸컷, 2019

【작품 03】 <The Black is Melting>은 본 연구자가 얼음을 이용하여 처음 시도하였던 작품이다. 먹물을 얼리고 먹물 조각을 화판 모서리 위에 올려 두고 먹물이 흐르는 모습을 관찰한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종이를 붙인 화판 위에 먹물을 얼린 얼음을 올려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 먹물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촬영하였다. 먹이 흐르면서 종이에 모두 흡수되었고, 나중에는 먹물이 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점차 종이

와 얼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실험에 시도하였는데, 화판을 완전히 눕히기도 하고 종이를 걸어두는 등 현재의 작업으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과정을 두 번의 개인전과 석사학위청구전에서 선보였던 작품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경계가 희미해>

전시 <경계가 희미해>는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정의내릴 수 없는 자연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 전시이다. 본 연구자는 문득 바다 풍경을 바라보던 중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희미해 보이는 경험을 하였다. 하늘, 바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자연 세계에서 하늘과 바다는 그 개념이 모호해 보였다. 자연 세계에서는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자연 세계의 ‘하늘’ 과 ‘바다’ 는 규명된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며 그 경계는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이르렀다.

규명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본 연구자의 생각을 전시의 형태로 보여주고자



【작품 04】 <대화들>, 가변설치, 종이에 안료와 얼음, 2021



【작품 04】 <대화들>, 가변설치, 종이에 안료와 얼음, 2021

하였다. 【작품 04】 <대화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파란색 사각형 얼음을 만든 후 200장의 화선지 위에 올려두고 녹인 작품이다. 겹겹이 쌓인 종이 위에 놓인 얼음은 녹으면서 안료가 섞인 물이 아래로 스며들었고, 물의 흐름에 따라 파란색 안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작품을 설치할 때는 종기와 종이 사이의 간격을 넓혀 그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하였다. 점점 모양이 작아지는 모습은 스며드는 깊이를 보여주면서도 사각형의 모양이 점점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인간이 사각형 모양으로 자연을 가공하려고 애써도 결국 자연은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등의 다양한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전시 제목이기도 한 【작품 05】 <경계가 희미해>는 전시 현장에서 사전 설



【작품 05】 <경계가 희미해(Ice of River Project)>, 리트머스지, 얼음, 가변설치, 2021/2020



【작품 06】 <경계가 희미해(Ice of River Project) process video>, 단채널 영상, 00:03:16, 2021

치 후, 그 과정을 촬영하고 결과물과 영상을 함께 전시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얼음이 녹아 종이에 흡수되면서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작품은 본 연구자가 2020년도부터 시도한 환경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에 흐르는 5가지 하천을 찾아 물을 페트병에 담은 후 얼리고 페트병을 제거하였다. 그렇게 하면 페트병 모양인 얼음이 만들어진다. 그다음 종이를 준비한다. 적체

를 끓여 추출한 보라색 물을 장지에 바른다. 종이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크기에 맞춰(150x40cm) 자른다. 선반에 종이를 고정시킨 후 얼음을 올려 둔다. 이 작업은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그 물이 종이에 스며들며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며 아래로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이다. 이 작품에서는 날씨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얼음이 녹는 속도가 변하고 그에 따라 번지는 모양과 속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자연은 똑같은 법이 없다. 본 작품은 물이 흘러내리는 성질과 종이에 흡수되는 성질 모두를 자연의 재료로 보여주고자 한 퍼포먼스로 이해할 수 있다.



[도판 12] <용해>
detail

【작품 02】 <용해> 작품에서는 가공한 자연인 소금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경계를 만들고 물이 어떻게 번지는지 관찰한 작품이다. 물이 가운데에서부터 가장자리로 번져나가다가 소금 경계를 만나는 순간 속도가 느려진다. 물은 소

금을 녹여 자신과 함께 천천히 변져나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리에 멈춘다.

[도판 12] 을 보면 소금과 같이 녹았던 물이 건조되면서 소금은 종이에 결정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작품에서는 물의 변지는 속성이 소금을 만나면서 경계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듯한 긴장감을 주기도 한다. 자연과 가공물의 만남을 시도하면서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물은 종이를 만나며 번지고 소금은 물을 만나 녹아 종이에 흡수된다. 결정적으로 그 모든 과정은 종이에 남게 된다.

본 연구자는 본 전시에서 인간이 규정한 ‘하늘’ 과 ‘바다’ 와 같이 경계가 명확한 것에서 자연의 모호한 성격을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자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물질 중 물의 속성을 통해 작품을 진행하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바닷물이 기화되어 구름이 되고, 구름이 액화되어 비가 되고, 비가 응고되어 빙하가 되는 식의 자연의 순리처럼 ‘명명하는 것’ 은 경계를 짓는 것에 불과하며 자연스러운 변화가 낳는 것의 ‘그것’ 이다.³⁰⁾ 본 연구자는 작가 그리고 관람객이 각자가 규정하고 있는 삶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자는 자연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의 과정에서 무위를 실천하고자 하였으며, 자연에서 배우는 삶이란 무엇인지 물의 속성을 이용한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종이와 물, 안료와 종이, 작품과 (작가를 포함한) 관객을 ‘만남’ 의 자리로 초대한다. 이우환이 다르게 보이는 그 순간적 경험이라고 설명했던 의미의 만남을 본 연구자의 작업 태도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전시에 보여주며 관객 스스로 만남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랐다. 본 연구자는 본 전시를 통해 연구 방향성을 확립하

30) 전영진, 「모든 것은 희미해」, <경계가 희미해>(2021) 전시 서문에서 발췌

여 이후 자연에 대한 탐구 및 실험을 보완 및 확장하여 진행하였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던 실험들을 ‘자연의 속성’에 대한 탐구로 주제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 중 자연스럽게 ‘물’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으며, 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실험적 작업을 진행하였다.

2. <막간을 이용하여: Intermission>



[도판 13] <막간을 이용하여> 전시 전경 中 <7:43>, 가변설치, 한지에 얼음, 혼합재료

막간이란 막과 막 사이를 말한다. 연극에서의 막간이란 막과 막 사이의 쉬는 시간을 일컫는다. 연극에서는 막이 펼쳐지는 때가 주목받지만 본 연구자는 대략 30분정도 주어지는 막간(Intermission)에 집중한다. 쉬는 시간

(Intermission)이 되면 가려진 막 안에서 악기를 조율하거나 제각기 다른 시험 연주를 하여 여러 악기 소리가 섞이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정해진 대본과 악보를 통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극이 아닌 자유로운 선율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던 경험으로 기획한 전시이다. 우리는 보통 선명하게 보이는 풍경에 주목한다. 확실하고, 정의 내림 가능하고, 개념화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막간을 이용하여 (Intermission)> 전시에서는 그 완벽하게 구성된 막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막과 막 사이, 즉 막간에 주목하였다.

[도판 13] 에서 보이는 작품 <7:43>을 통해 종이와 종이 사이의 간격을 띄워 막간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다. 본 작품은

【작품 04】 <대화들>의 연작으로, 자연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연 풍경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작품의 제목인 7:43이라는 숫자는 본 연구자가 직접 찍은 하늘 사진에 7:43이라는 시간이 찍혀있었는데, 이 시간이 오후인지 오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경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작품에 사용한 색은 일몰, 일출의 두 개의 얼음을 사용하였다. 일몰과 일출의 하늘은 여러 색으로 물드는데, 얼음을 통해 그 하늘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각



【작품 07】 <7:43을 위한 드로잉>, 2022

각의 색을 여러 차례 층층이 쌓아 얼렸다. 얼음에 사용한 색과 모양을 알 수 있도록 【작품 07】 <7:43을 위한 드로잉>을 함께 전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실제 얼음이 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주 1회 전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퍼

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작품 08】 <색연구(Ink Project)>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인지하는 색의 모호성을 작품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령 “파랑”이라는 색에 대해 개인마다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색은 같지 않다. 자연의 색도 마찬가지이다. 나뭇잎을 초록색이라고 말하지만 각각의 잎사귀를 따져보면 모두 다르다. 개념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그 사이에 있는 모호함을 확대시킨 것이다. 본 전시의 목적은 완벽한 계획 아래에 있는 공연과 같은 사회 모습 대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정리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데에 있으며, 개념화할 수 없는 자연의 속성을 본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작품 08】 <색연구(Ink Project)>, 가변설치, 종이에 잉크, 2022

3. <수중진담 水中眞談>

석사학위 청구전 <수중진담 水中眞談>에서는 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자연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작업 중 발견한 물의 속성을 적극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전시 현장에 설치하였다. 3장에서 설명했던 본 연구자가 발견한 물의 속성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2. 물은 종이에 흡수된다. 3. 물은 무언가를 실어 나른다. 4. 어떤 형태로든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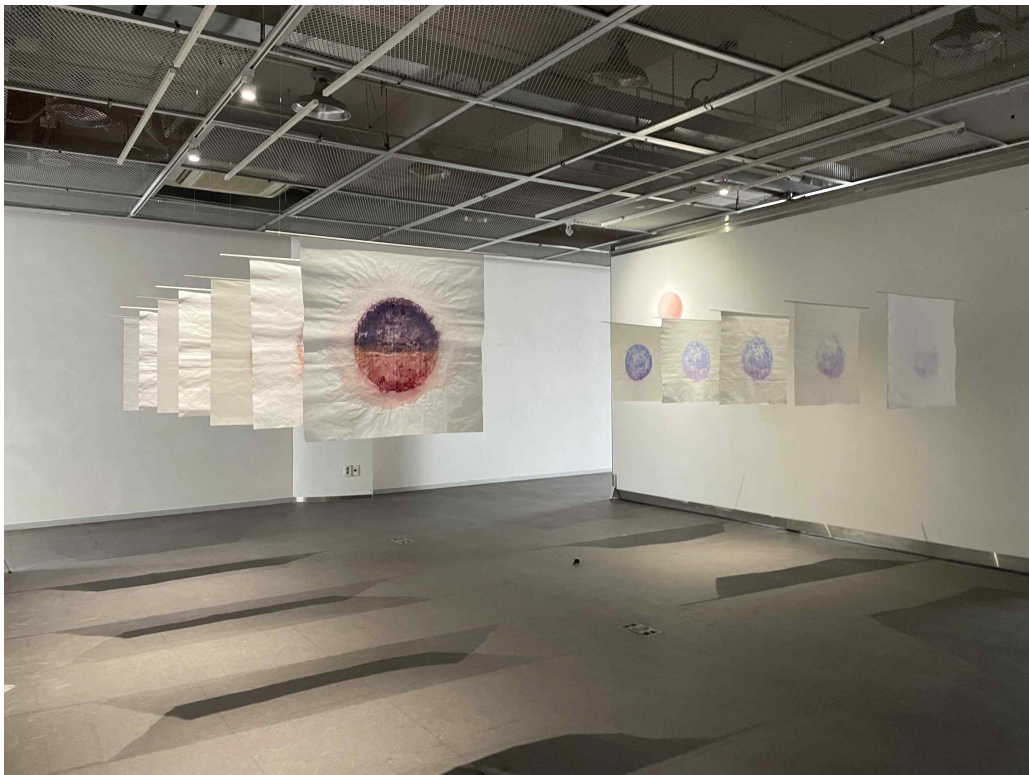
위 네 가지 속성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느낀 자연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 하던 중 본 연구자는 직접 경험한 물의 모습을 작품의 형태로 차용하였다. 본 전시의 작품은 주로 폭포, 나무(식물), 바다, 하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작품 09】 <Circle>, 150x150x150cm, 종이에 적채 우린 물, 2023

【작품 09】 <Circle>은 순환이라는 뜻으로 본 연구자가 살던 아파트 내에 있던 계단식 분수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구상한 작품이다. 분수는 물의 순환을 모방한다. 물이 떨어지고 그 물이 다시 순환하여 반복되는데, 특히 계단식 분수는 폭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본 연구자는 계단식 폭포를 만들기 위해 구조물을 만들고 적체 물이 발린 리트머스 종이를 설치한다. 각 층마다 얼음을 올려두었다. 얼음이 녹으면서 종이에 흡수되고 변지면서 모양이 그려지고,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 방향으로 흐른다.

일몰과 일출의 색을 담은 작품 <7:43>의 연작인 【작품 10】 <사이시간>은 일몰과 일출이 서서히 없어지거나 서서히 사라지는 사이 시간에 관심을 가게 되면서 제작한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자연을 형상화한다면 어떤 모양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각형보다는 원형에 가깝다고 여겨 원형 틀에 일출과 일



【작품 10】 <사이시간>, 가변설치, 종이에 안료, 2023

물 하늘의 색을 얻었다. 【작품 10】에서 좌측이 일몰 하늘의 색, 우측에 일출 하늘의 색을 담고 있다.



【작품 11】 흐름, 2023, 21 ϕ x180cm, 3ea, 종이에 안료

한편 본 연구자는 물의 흐름에 대해 연구하던 중 중력과 반대로 흐르는 물의 속성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이었다. 【작품 11】 <흐름>은 식물을 타고 올라가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을 마주한 후 기획한 작품이다. 물이 아래로만 흐른다는 진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공기 중의 수증기와 식물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은 자연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움직인다. 얼음을 통해 아래로 흐르게 실험한 다음 그 결과물을 거꾸로 흐르

는 물처럼 거꾸로 세워두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흐름과 다른 물의 흐름 즉, 식물을 통해 빨아들어지는 물을 연상시킨다.



【작품 12】 <얼음 산수>, 2023, 가변크기, 종이에 안료(혼합재료)

본 연구자는 얼음을 녹이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작품 12】 <얼음 산수>를 제작하였다. 본 작품의 제목을 <얼음 산수>라 붙였는데, 전통 동양화에서 산수는 물이 생명력을 얻어 물로 그려진 것이라 한 개념을 연결 시킨 것이다. 본 작품은 빈 종이에 호분을 먼저 흩뿌려두었다. 얼음이 녹으면서 점차 색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눈이 오는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 얼

음이 녹으면서 화면에 점점 색이 물드는 모습을 얼음 스스로 산수를 그리는 것이다. 전시를 보는 관람객이 작가가 존재하지 않아도 얼음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관람객이 작가의 무위적 표현기법을 실시간으로 마주하게 되고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스스로 그려한 자연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으며, 본 연구자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행위를 제거하는 실험적 작품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위 개념과 무위의 세 가지 태도를 미니멀리즘, 모노하의 작업 태도와 관련 문헌들을 통해 살펴보고, 무위적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위적 태도는 1)작가성의 배제, 2)물질성 3)존재적 사물이라는 태도이다. 미니멀리즘에서는 작가성이 배제되었다는 점과 물질성이 드러났다는 점은 미술의 역사와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에서는 무위적 태도를 완벽히 찾기에 한계가 있어 동양의 모노하 그룹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노하는 작품의 재료를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이우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작품과 ‘만남’을 강조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작품이 되는 자연에 존재를 부여했다는 새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자가 바라보는 태도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니멀리즘과 모노하 작품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체, 조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회화라는 매체를 기반으로 실험적 작품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모노하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우환이 회화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회화적 흐름에 무위적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무위적 태도로 실험적인 작품을 진행하는 데에 본 연구자는 ‘물’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물의 속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특징을 발견하여 작업으로 이어 나가고 있으며, 둘째,

물에 안료를 섞어서 얼린 다음 종이에 두면 안료와 함께 번져나가는 현상을 보며 물은 무엇을 나른다는 특징을 발견하여 이용하고 있다. 셋째, 종이에 흡수된다는 특징으로 여러 겹의 종이 위에 녹이는 실험적 작품을 진행하고, 넷째, 담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모양이 바뀌는 특징을 발견하고 얼음을 담은 그릇을 달리하여 작품에 녹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의 주요 전시와 석사학위청구전을 바탕으로 작품 내용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자연의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도를 통해 확장된 회화적 실험을 이어 나갈 것이다. 또한 설치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양한 전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무위적 표현기법 실험에 의한 작업 과정에서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무위적 삶의 태도를 실천함은 물론 관람객과의 소통, 곧 만남을 통한 공유에까지 이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가오상젠, 박주은 역,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 김시천 역, 『왕필의 풀이로 읽는 노자도덕경』, 전통문화연구회, 2020
- 김백희, 『노자의 사유방식』, 한국학술정보, 2006
- 니코스 스탠고스, 성완경/김안례역,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2004
- 미학대계간행회, 『미학의 역사 미학대계 제1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사라 알란, 오만중 역,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문서원, 1999
-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04
- 심은록, 『양의의 예술』 현대문학, 2014
-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후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편』, 휴머니스트, 2013
- 평유란, 정인재 역, 『간명한 중국철학사』, 2018
-
- 김경남, 「자연의 불확정적, 불규칙적인 비주얼의 형식미적 해석」, 한국디자인지식포럼, 2008
- 김석수, 「칸트에 있어서 자연미와 예술미」, 새한철학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 61집, 2010
- 남수진, 「공존의 미의식: 이우환의 작품세계」. 동양예술 28, 2015
- 박덕인·서우석, 「노자 사상의 환경윤리적 함의」,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1』, 2004
- 전유미·배정민·한왕모,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노자 사

상의 시각적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스가 키시오, 「나는 현대전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방치라는 상황」, 1971

손지민, 「모노는 어떻게 예술적일 수 있는가?」, 인문논총 제 78권 제 4호,
2021

신혜영,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윤리학: 도덕적 주체 개념」, 『철
학과 현상학 연구』, 제68집, 한국현상학회, 2016

정은영, 「액션 페인팅에 대한 회화적 도전의 비판적 양상과 교육적 함의 -
잭슨 폴록과 월렘 드 쿠닝에 대한 회화적 도전을 중심으로 -」 造形教育,
2015

김민철, ‘조선일보 기사 [만물상] 서울 공기가 뉴질랜드보다 좋다니’ ,
2022.08.31.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2/06/15/YI6Y7V7RNZ
G4DGNVYGQJBIF7MA/](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2/06/15/YI6Y7V7RNZG4DGNVYGQJBIF7MA/))

윤순진 외, 코로나19 특집 다큐: 2050 생존의 길 | 특집 시사기획 창 306회
2020.11.07.

(<https://youtu.be/fjvbrtHE7K0>)

전영진, 「모든 것은 희미해」, 박현주 개인전 <경계가 희미해>(2021) 전시
서문

Abstract

A Study on the 'Actionless Action' Painting Using Water

– Focused on the Researcher' s Artworks –

Park, HyunJoo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an era of climate crisis,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eforestation is seen as one of the causes of the COVID-19 pandemic. Ironically, as the pandemic reduced human activity outside, studies have reported that air quality improved. What is clear from these reports is that human activity i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nature. This researcher, who is interested i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try to work on the topic of environment and nature. Furthermore, for the sustainabl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it is necessary to practice an attitude of life that follows the nature of nature instead of going against it, and the researcher tries to show this through the

process of my work. This research starts with this problem and sought to find the solution in Taoist thought.

Lao Tzu, a master of Taoist thought, emphasized that nature should be as it is, which is called 'Actionless Action(Wu Wei)'. In other words, in order for nature to exist as it is, it must practice the Actionless Action. This researcher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nature through the properties of water, which is the main material of the work, and takes the attitude of expressing it as it is, which is in line with the atavistic attitude towards nature shown in Lao Tzu's atavistic thought. This researcher's attitude can be seen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artificial intervention is excluded. Second, the water used as a material in the work is revealed as a natural property. Lastly, it recognizes the subjectivity of the work itself.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Actionless Action can be traced back to the work of minimalism and mono-ha.

So, what are the materials that can show this attitude? There are many materials, but the researcher found 'The Water' to be the most suitable. Therefore, the researcher conducts several experiments with water to discover its properties and uses the discovered properties to conduct his work.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describes the properties of water that the researcher discovers through my work, and analyze the contents of my work, focusing on the researcher's solo exhibition. In <Boundaries are Blurred>, the artist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natural world does not exist as a concept defined by humans. The work, which was experimented

with water, shows 'naturalness'. <In Intermission>, the researcher attempts to subvert concepts more directly. Named colors are smeared with ink to show the spectrum of colors, or clear photographs are smeared to make them blurry. These works seek to draw attention to the world between concepts and concepts, a world that is not organized by concepts. In his master's thesis, "The properties of water(SooJoongJinDam)" the researcher tries to actively show the properties of water. It can see the properties of water (flowing downward, smearing on paper, absorbing pigments, etc.) that the researcher discovers through various experimental works.

In conclusion, the researcher aims to look at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from an attitude of the Actionless Action, and to show this through the Actionless Action expression techniques revealed in this researcher's work.